

“14년 만에 주말극…대본 볼때면 심장이 쿵쿵쿵쿵”



배우 최수종이 1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제작발표회에서 점프 동작을 선보이며 '이벤트의 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KBS2TV '하나뿐인 내편'으로 돌아온

최수종

가족 위해 불행을 짚어준 아버지 역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 생각
온가족에 재미·감동 전하도록 노력
극중 딸인 유이와 연기호흡 대만족



연기자 최수종이 KBS 2TV '하나뿐인 내편'을 통해 무려 14년 만에 주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1990년대 주말드라마를 무대로 활약을 벌여 그의 복귀를 많은 시청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높은 시청률로 이끌고, 그 활약에 힘입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어 최수종을 향한 기대의 시선은 벌써부터 뜨겁다.

15일 첫 방송을 앞두고 12일 서울 논현동 한 호텔에서 만난 최수종은 “저도 드라마 시작할 때는 떨리고 두렵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본을 많이 읽고 준비해 현장에 나간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하나뿐인 내편'은 최수종이 2012년 KBS 1TV '대왕의 꿈' 이후 6년 만에 출연하는 지상파 드라마다. 현대극으로는 2010년 KBS 2TV '프레지던트' 이후 8년 만이고, 주말드라마로는 MBC '장미의 전쟁' 이후 14년 만이다. '하나뿐인 내편'은 최수종에게 여러모로 '오랜만'이란 수식어를 쓰게 되는 작품이다. 최수종은 그만큼 각오도 남달랐다.

그는 “지금까지 최고로 꼽히는 주말드라마를 넘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주말극보다 한 차원 뛰어넘어 가족들이 모여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웃음과 재미, 눈물과 감동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나뿐인 내편'은 28년 만에 나타난 친아버지(최수종)로 인해 인생이 복잡해진 딸(유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족이야기를 그린다. 극중 최수종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27년간 감옥에 있다 출소한 뒤 딸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성과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는 강수일을 연기한다. 두 사람 외에 이장우, 윤진이, 나혜미, 박상원, 진경, 차화연 등이 출연한다.

최수종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려 불행의 길로 접어든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버지다운 아버지 역할을 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 연기자가 궁극하면 드라마가 잘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더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드라마를 선택하기 전에 악역에 대해 많은 섭외가 왔었다. 그 역할에 대한 당위성이 주어지지 않은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 선택하기 어려웠다.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배역의 당위성도 주어지고,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불행을 짚어준 아버지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이 작품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딸로 출연하는 유이와의 호흡에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수종은 “유이의 성격이 굉장히 좋아 편하게 촬영하고 있다. 카메라 안과 밖의 행동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최근 감회에 들어가 촬영한 장면을 소개하며 “유이가 수건, 보온병, 핫팩을 바리바리 써서 가져왔다. 감기 걸리면 안 된다며 선물을 한 아를 주고 갔다”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드라마 전개의 핵심이다. 극중 이들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27년을 살아가다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최수종은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정으로 절절한 부성애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드라마를 통해 입증된 최수종의 눈물 연기 도 시청 포인트다.

최수종은 유난히 KBS와의 '궁합'이 좋아 'KBS 공무원'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그는 1998년 '아망의 전설', 2001년 '태조 왕건', 2007년 '대조영'으로 세 차례 연기대상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수종은 “KBS 공무원'이란 이야기는 영광이다. 자기 관리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다. 이때까지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캐스팅 이후에는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그의 아내인 연기자 하희라 역시 KBS 2TV 아침드라마 '차달래 부인의 사랑'으로 컴백했다. KBS의 일주일을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책임지게 된 것이다.

최수종은 “하희라 씨가 출연하는 '차달래 부인의 사랑' 감독과 과거 '태양인 이제마'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하희라 씨랑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리고 작가님도 같은 작품을 했던 분”이라며 인연을 소개한 뒤 “최수종-하희라가 KBS를 책임진다는 말은 영광스럽긴 하다. 하지만 드라마는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배우, 스태프가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게 드라마다.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출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5

리쌍의 길, 결혼설 이어 득남설

합합듀오 리쌍의 길(김성준·40)이 이번엔 득남설에 휩싸였다. 12일 온라인상에는 길이 혼인신고 6개월 만에 득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길의 아내는 서울 영등포 모처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음주운전으로 자숙중인 길은 올 초부터 각종 '설'에 휩싸여왔다. 1월 서울예대 재학생과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당시 길의 측근은 부인했다. 같은 해 5월엔 결혼설까지 불거졌고, 길 측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득남설에 대한 주변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길은 2004년, 2014년 그리고 2017년까지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작년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스틱엔터, 아이유 주연 시리즈물 제작

윤종신의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영화 감독 4명과 함께 아이유를 주연으로 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감독은 '미남 백덕' '남극일기'의 임필성 감독, '비밀은 없다' '미쓰 홍당무'의 이경미 감독, '더 테이블' '최악의 하루'의 김종관 감독, '소공녀'의 전고운 감독이다. 네 감독은 아이유를 주연으로 각기 다른 주제와 콘셉트로 단편영화를 만들고, 이들은 시리즈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미스틱은 “오리지널 시리즈는 단편영화의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라며 “한 명의 주인공을 네 감독이 어떻게 다르게 풀어냈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수 KBS 2TV '해피투게더' 하차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가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시즌4로 새 출발한다. 기존 진행자들 중 유재석은 남고 박명수 전현무 조세호 엄현경은 하차할 전망이다. 제작진은 현재 유재석과 함께 호흡을 맞출 파트너 여배우를 물색하고 있으며, 시즌4의 방송 시기는 미정이지만 가을 개편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멤버로 진행되는 녹화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해피투게더'는 2001년 방송을 시작해 다양한 인기코너를 선보이며 현재까지 오랫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7년 시즌3로 새 단장했던 '해피투게더'는 11년 만에 새 시즌을 앞두게 됐다.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에 연예인 포함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65곳과 개인 28명 등 9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일부 연예기획사의 탈세 수법도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획사 대표 B씨는 외국법인 C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해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 70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로배우 김인태 지병으로 별세

원로배우 김인태가 1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2007년 발병한 전립선암, 파킨슨병, 근부력증 등으로 투병하다 이날 오전 경기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 김인태는 연극배우로 출발해 안방극장을 누빈 대표적인 배우다. 서라벌예술대학을 졸업한 뒤 1954년 연극 무대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전원일기' '태조 왕건' '제4공화국' '무인시대' '발리에서 생긴 일' '왕꽃 선녀님' 등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고인의 미망인은 배우 백수현(77)이며, 아들 김수현(48) 역시 배우로 활약 중이다. 빈소는 경기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